

호남 최초 독립영화전용관 광주에 생긴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영진위 공모 선정...국고 지원 내년초 개관...다양성 확대 기대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광주영상 복합문화관의 'G 시네마'가 호남지역 최초로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지정됐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및 운영지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G 시네마'가 독립영화전용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및 운영지원은 그간 지역에서의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영화계 현장의 민간전용관에 대한 지원요구를 반영해 공모사업이 진행됐다.

이는 지역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을 통해 영화인들에게는 독립영화의 상영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해 영화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선정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자리한 'G 시네마'는 3D 디지털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첨단영상극장이다. 총 105석 규모의 극장으로 3D 첨단영상, 디지털애니메이션, 다양성영화 등 상업영화에서부터 독립영화까지 모두 상영할 수 있는 첨단영상시설을 갖췄다. 디지털입체음향시설, 와이드스크린 등을 통해 첨단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영진위로부터 1년간 운영비(전액 국비 예산) 1억1900여만원을 지원받아 'G 시네마'를 운영할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선정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자리한 'G시네마'. <광주일보 자료사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G 시네마' 내부 모습.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제공>

계획이다. 운영비는 향후 5년간 전용관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원된다.

독립영화전용관은 올해 말까지 발권시스템 등 전용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내년 초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이 기존에 운영중이던 'G시네마 청춘극장' 등의 프로그램은 독립영화 상영과 연계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순히 영화만 상영하는 수동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영화와 연계한 인문학 강좌, 학생 영화교육, 지역 동호회와 함께 하는 상영회 개최 등 다른 지역의 독립영화전용관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진위는 "광주영화영상인연대 G시네마"는 지역영상인 연대차원의 자발적 출범으로 독립영화 발전에 긍정적 기여와 역할이 기대된다"며 "민간부분의 운영체계에 대한 영진위의 감독이 요망되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순환 광주독립영화협회장은 "독립영화전용관의 영화 관람료,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광주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논의할 계획이다"며 "빠르면 내년 1월, 늦으면 3월쯤 정식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지역 영화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독립영화전용관이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해소돼 기쁘다"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G 시네마'가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선정되면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설치된 광주폴리뷰 비폴리 '자율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상상 결들인 '삼국사기' 탄생 비화

연극 '표' 12월1일~3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연극 '표(사진)'가 오는 12월 1일 오후 8시30분, 2~3일 오후 2시,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한 이번 공연은 2017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연극 '표'는 1145년 고려 인종 시대를 배경으로 삼국사기가 편찬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창작극이다. 삼국사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작가(양수근)의 상상력과 연출(이영민·극단 까치날 대표)이 구성했다.

극의 제목인 표(表)는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종이 백성에게 표

를 올리는 모습을 통해 황제가 신하가 돼 백성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삼국사기 편찬 과정 속에서 그 시대 인물들을 무대로 소환해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를 조망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관객에게 던진다.

희곡을 쓴 양수근 작가는 1996년 전남일보 신춘문에 '전경이야기'로 등단, 연극 '홍인원(작은 신화)', '육(국립극장)', '등대(대학로 예술극장)' 등의 작품활동을 해왔으며 박규상, 심성일, 최용규, 황민영, 강원미, 윤미란, 강태호, 임남엽, 문지혜가 무대에 오른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jart.kwangju.go.kr)에서 예매 가능하다. 관람료 일반 1만원, 학생 무료.문의 062-613-8353. /전은재기자 ej6621@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 향연...오늘 아트스페이스



풍물판굿 공연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29일 오전11시 광주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국악 임방울의 소리 향연' 공연을 연다.

첫 번째 무대는 농경문화 농악놀이에서 파생된 풍물판굿을 선보인다. 공연예술양상별빠드라 팀과 박종호 외 4명의 신명난 공연에 이어 정상의 명창이 '흥보가' 중에서 '흥보 첫째 박 타는 대목'을 들려준다.

이어 올해 개최된 제25회 임방울국악제 퓨전판소리부 최우수상팀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공연과 판소리 박종호 명창이 '적벽가' 중 '적벽갈 불 지르는 대목', 국무총리상 수상자 김승호, 유세운 외 3명의 기악합주 '칠갑산', '신고산타령' 연주, 제13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찬미 명창이 '춘향가' 중 '동헌경사 대목'을 펼친다.

무대의 마지막은 대통령상 수상자 김찬미, 원진주, 서정민, 노해현, 정상희 명창과 전 출연진이 흥겨운 남도 민요를 준비했다. 문의 062-673-0731.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 문화예술교육 포럼

내일부터 이틀간 여수서

전남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오영성)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2017 전남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여수 유개슬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성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은 문화예술교육의 과거·현재·미래를 점검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신동호 커뮤니티 대표가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이슈들'을, 박홍필 극단 새결 대표가 '문화예술교육과 사랑-여러 교육주체에 대한 반성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은 각 발표 후 이성태 서울사이버대학교 콘텐츠기획·제작학과 교수,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신효진 생활문화진흥원 기획운영팀장, 황정미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대표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584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설 박신영·시조 서연정·수필 황옥주

국제펜광주문학상 수상자 선정

국제펜클럽 광주시위원회는 '제14회 국제펜광주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박신영의 '탈출', 시조시인 서연정의 '광주에서 꿈꾸기', 올해의 작품상에 수필가 황옥주의 '마음의 그림자'를 각각 선정했다.



박신영



서연정



황옥주

박관서, 서용좌, 조숙형, 김정희, 김중 등 심사위원 5명은 최근 심사를 열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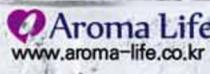
본상에 선정된 박신영 소설가의 '탈출'은 소설집 '탈출'의 표제작으로 소박대기의 삶을 사는 인물의 남은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

서연정의 '광주에서 꿈꾸기'는 여섯 번째의 시조집으로 창작의 역량이 녹아 있는 다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서 시조시인은 1997년 중앙일보백일장과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조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입문했다.

우수작품상으로 선정된 황옥주의 수필 '마음의 그림자'는 개인의 슬픔을 초월해 삶을 성찰하는 주제의식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시상식 및 국제펜한가족의 밤 행사는 내달 5일 오후 5시 광주 서구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